

‘배드민턴 메카’ 화순군 선수들, 전국대회서 두각

화순군청·화순고 등 잇따라 금메달 등 성과
최적 훈련 시설·지자체 지원·지도자 네트워크
“지역 체육인재, 더 넓은 무대 비상 적극 지원”

화순군 배드민턴 선수들이 탄탄한 훈련 인프라 등에 힘입어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청 배드민턴 실업팀이 최근 전국동계실업배드민턴대회 여자 일반부 단식(전주이)과 복식(유채란·정나은)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화순고 배드민턴 팀도 화장기 전

국 학생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준우승했다. 고등부 2학년 단식(정다연, 복식(정다연·공여진), 혼합복식(김하빈·공여진) 등에서 금메달 3개를 차지했다. 화순고 팀은 제59회 전국 불철중 별배드민턴 리그전에서도 단체전 3위에 올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화순 배드민턴은 최적의 훈련 시

설과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지도자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우러져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화순에는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기념해 조성한 배드민턴 전용 이용대체육관과 하니움스포츠문화센터 등이 있어 기술 훈련과 기초 체력 훈련장으로 제격이다. 전지 훈련장으로도 인기가 좋아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지난 4월 말까지 도쿄올림픽 전지훈련을 갖기도 했다. 한국 여자 복식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정명희 화순군청 실업팀 감독은 선수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로 꾸준히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고 있다. 화순군청 소속 정나은, 전주이 선수가 올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화순군은 배드민턴 육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 초·중·고교가 운영 중인 17개 종목 운동부에 해마다 3억여원을 지원하면서 배드민턴 종목에 7000여만원을 배분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학생부 꿈나무와 실업팀을 연계한 엘리트 체육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며 “지역의 체육인재가 계속 성장하고 더 넓은 무대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12일 군청 배드민턴 실업팀이 전국동계실업배드민턴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진=화순군 제공).

김광현, 밀워키전 5닝이닝 1실점...팀은 연장 끝 역전승

타선 지원 못 받아 승리 다음에
한미 통산 1500 탈삼진도 기록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이 11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아메리칸 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김광현은 트레비스 쇼를 삼진 처리하며 한미 통산 1500K를 달성했다.

‘KK’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잘 던지고도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해 시즌 2승을 놓쳤다.

김광현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아메리칸 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선발 등판해 5닝이닝 5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최다인 88개의 공을 던졌고, 이중 스트라이크는 58개로 집계됐다. 포심 패스트볼이 37개로 가장 많았고 슬라이더(31개), 체인지업(12개), 커브(8개)가 뒤를 이었다. 최고 구속은 91.3마일(약 147km)이 찍혔다.

김광현은 탈삼진 6개를 잡는 동안 볼넷을 1개로 막았다. 평균자책점은 3.06에서 2.74로 낮췄다.

팀이 0-1로 끌려가던 6회 1사 후 마운드를 내려간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가 연장 접전 끝 6-1로 이겨 MLB 데뷔 첫 패는 면했다. 김광현은 첫 시즌인 지난해 패배 없이 3승을 건졌다. 올해 5경기 성적은 1승 무패다.

한미 통산 1500 탈삼진 기록도 수립했다. 2007년 KBO리그 SK 와이번스(SSG 랜더스 전신)를 통해 데뷔한 김광현은 2019년까지 한국에 머물며 총 1456개의 탈삼진을 맞았다.

이날 경기 전까지 MLB에서 44개를 보낸 김광현은 밀워키를 제물로 1500개 고지를 돌파했다.

타석에서는 2타수 무안타로 물러났지만 6회 빠른 발로 상대 실책을 유도하는 다재다능함을 뽐냈다.

김광현은 1회말 시작과 함께 선두타자 콜튼 윙에게 2루타를 얻어맞았다. 지난 시즌까지 세인트루이스에서 김광현을 도왔던 윙은 빠른 공을 밀어

쳐 좌중간을 갈랐다. 몸이 채 풀리기도 전에 일격을 당한 김광현은 빠르게 페이스를 회복했다. 로렌조 케인에게 날카로운 슬라이더 더러 헛스윙 삼진을 유도한 김광현은 타이론 테일러와 트레비스 쇼를 각각 2루수 뜬공과 헛스윙 삼진으로 제압했다. 쇼를 잡아내면서 한미 통산 1500탈삼진을 완성했다. 김광현은 2회 선두타자 루이스 우리아스를 2구 만에 중견수 뜬공으로 돌려세웠다. 매니 피냐에게는 슬라이더를 활용해 세 번째 삼진을 뽑아냈다.

2사 후 김광현은 7번타자 재키 브래들리에게 볼넷을 내줬다. 1B-2S의 유리한 볼카운트를 살리지 못했다.

후속타자 파블로 레예스에게 언저푸 볼 3개를 던진 김광현은 3B에서 맞은 큼지막한 타구가 좌익수 글러브에 빨려들어가면서 이닝을 마쳤다.

3회에는 첫 삼자범퇴를 신고했다. 투수 프레디 페랄타를 투구 삼진으로 처리했고, 다시 만난 윙과 케인도 범

타로 요리했다. 배트 중심에 맞은 케인의 타구가 유격수 정면으로 향하는 운도 따랐다.

4회에는 공 2개로 위기를 넘겼다. 1사 후 쇼는 김광현에게 우중간에 떨어지는 2루타로 출루했다.

김광현은 초구에 우리아스를 투수 플라이로 잡았다. 몸쪽 깊숙이 찌른 공에 우리아스가 애매한 스윙을 하면서 손쉽게 아웃 카운트 1개를 늘렸다. 후속타자 피냐도 초구 투수 땅볼로 잡았다.

세인트루이스 타선은 밀워키 선발 페달타의 여부에 무독점으로 쫓겨 있었다.

그레도 김광현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5회 선두타자 브래들리와의 승부를 유격수 땅볼로 끝냈다. 레예스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지만 보내기 번트에 나선 투수 페랄타를 3구 삼진으로 잡고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신고했다.

윙과의 승부에서는 호수비의 도움을 받았다. 윙의 타구는 김광현을 지

나 중견수 앞으로 흐르는 듯 했지만 유격수 폴 데이외가 몸을 던져 건졌다. 2루 베이스 쪽으로 조금 위치를 조정할 것이 재미를 봤다.

곧바로 이어진 6회초에서 김광현은 타자로서의 재능을 발휘했다. 몸쪽으로 크게 꺾이는 슬라이더에 배트를 갖다 대 내야로 보냈다. 느린 타구를 2루수가 황급히 잡아 건넌지만 1루수가 제대로 포구하지 못했다.

공식 기록은 실책. 김광현의 빠른 발이 밀워키 내야진의 실수를 유발했다. 하지만 1-3번 타자들이 모두 맥없이 아웃되면서 김광현은 1루에 머물렀다.

6회 수비에서 다시 한 번 위기에 놓였다. 선두타자 케인이 김광현으로부터 중견수 방면 2루타를 날렸다.

호흡을 가다듬은 김광현은 테일러에게 5구 끝에 삼진을 슈어내면서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신고했다. 90.3마일(145km)짜리 몸쪽 빠른 직구가 통했다.

하지만 쇼를 넘지 못했다. 풀카운트에서 슬라이더가 톱타 당했다. 쇼의 타구는 원바운드로 담장을 넘어가는 인장 2루타가 됐다. 2루 주자가 득점하면서 김광현의 첫 실점이 찍혔다.

세인트루이스 벤치는 곧장 김광현을 내리고 라이언 헬슬리를 투입했다. 헬슬리가 쇼의 득점을 막으면서 김광현의 실점은 늘어나지 않았다.

세인트루이스는 페랄타가 빠진 8회 마침내 균형을 맞췄다.

안타와 볼넷, 외야 뜬공으로 맞이한 1사 13루에서 딜런 칼슨이 희생 플라이를 날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김광현의 패배 가능성도 소멸됐다.

승부치기로 이어진 승부는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세인트루이스는 연장 11회 잠잠하던 폴 골드 슈미트의 투런포와 타일러 오닐의 스리런포를 앞세워 역전승을 완성했다.

4연승을 달린 세인트루이스는 22승 14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선두를 유지했다.

프로농구 현역선수들 뽑은 MVP ‘허훈’



프로농구 부산 KT의 허훈이 현역 선수들이 뽑은 최우수선수(MVP)에 이름을 올렸다.

농구전문지 ‘루키더바스켓’은 12일 “KBL에 등록된 10개 구단 소속 국내 선수 153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허훈이 총 285점을 받아 송교창(250점·KCC)을 제치고 MVP에 선정됐다”고 알렸다.

허훈은 “저를 뽑아준 선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게 표를 주신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커피 한 잔씩 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은 2016년 시작했다.

첫해 양동근(은퇴)을 시작으로 2017년과 2019년에 이정현(KCC), 2018년에는 오세근(인삼공사)이 선정됐다.

허훈은 송교창, 양홍석(KT), 이대성, 이승현(이상 오리온)과 베스트5에도 포함됐다.

인상적인 감독 부문에선 전주 KCC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끈 전창진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기량발전상과 식스맨상은 정창영(KCC)이 차지했고, 24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한 ‘영플레이어 MVP’는 양홍석이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최우수 외국인선수는 손 퉁(현대모비스)이다.

한편, 투표는 선수 1인당 1위부터 3위까지 총 3명에게 표를 줄 수 있고, 1위는 3점, 2위는 2점, 3위는 1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같은 팀 선수에게는 표를 줄 수 없다.

뉴스

KGC 우승 일조한 문성곤, 국가대표 합류

이정현·송교창 부상 낙마...고려대 센터 하윤기도 대체 발탁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의 챔피언 등극에 일조한 포워드 문성곤이 남자 국가대표 12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12일 “최종엔트리(12명)에 포함됐던 이정현, 송교창(이상 KCC)이 부상으로 빠져 문성곤, 하윤기(고려대)를 대체 발탁한다”고 전했다.

송교창은 플레이오프 기간에 부상으로 고생했던 발가락이 다시 불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 베테랑 이정현은 손가락을 다쳤다.

두 선수 모두 협회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협회는 문성곤과 하윤기를 대체 선수로 낙점했다.

문성곤은 최근 끝난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4경기에서 평균 6.8리바운



드 5.3점 1.5스틸을 기록하며 우승에 일조했다. 결정적인 리바운드와 수비로 존재감을 뽐냈다.

최근 두 시즌 연속으로 KBL 최우수 수비수상을 받았다.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하윤기는 204cm의 센터로 2021년 국내선수 드래프트에서 유력한 1순위 후보로 꼽힌다.

하윤기의 합류로 이현중(데이비스대), 여준석(용산고)까지 학생 국가대표는 3명으로 늘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피겨 중별선수권 개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13일부터 16일까지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제63회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중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2020~2021시즌 빙상 종목 마지막 대회로, 지난 제62회 피겨 중별선수권대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및 최종 취소됨에 따라 2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중별선수권대회는 남녀 싱글 3급 이상(A-C조)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참가 할 수 있으며, 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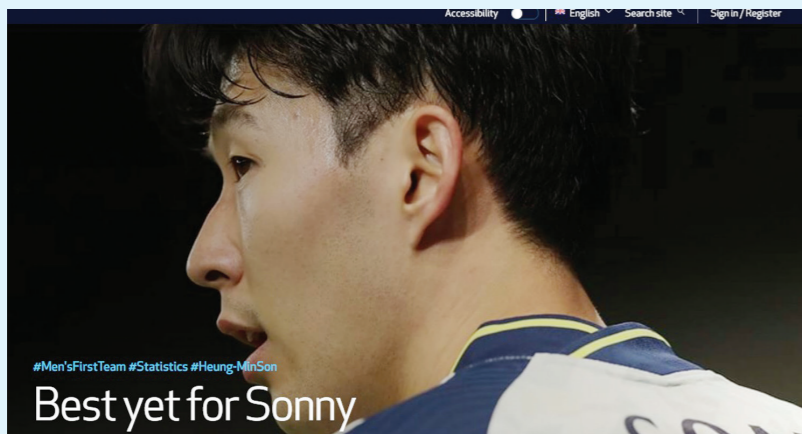
2020~2021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남자 싱글 우승자 이시형(고려대)과 2021~2022시즌 국가대표 윤아선(광동중), 임은수(신현고) 등이 참가한다.

무관중 대회 진행에 따라 현장을 찾지 못하는 피겨스케이팅 팬을 위하여 연맹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경기영상 제공 서비스를 진행한다.

뉴스

토틀넘, 한 시즌 최다골 손흥민 조명 “최고 기록 썼다”

올 시즌 EPL 17골...모든 대회서 22골 기록 중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틀넘 홋스퍼가 개인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세운 손흥민(29)을 조명했다.

다. 토틀넘은 12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아직 최고가 아닌 손흥민”이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손흥민이 자신의 공식전 최다인 22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 8일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3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1로 끌려가던 전반 25분 동점골을 넣었다.

손흥민의 올 시즌 정규리그 17호골이자 공식전 22호골로 2016~2017시즌 자신이 세웠던 공식전 최다골(21골)을 넘어 신기록을 새로 썼다.

동시에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현역이던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작성한 한국 선수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17골)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EPL 17골, 리그컵(카라바오컵) 1골,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4골(예선 1골 포함) 등 모든 대회에서 22골을 기록하고 있다.

구단도 “손흥민이 2016~2017시즌(21골), 2018~2019시즌(20골)을 넘어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즌 EPL 34경기에 17골을 넣었는데, 이는 2016~2017시즌 14골을 넘어선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골”이라고 덧붙였다.

토틀넘은 손흥민의 시즌별 득점 기록과 골 장면이 담긴 사진을 함께 올렸다.

2015년 토틀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EPL에서 6시즌 동안 리그 통산 194경기에 출전해 70골을 넣고 있다.